

## 韓國都市의 支配類型과 機能에 關한 生態學的 分析

金 漢 坤

(嶺南 大學校 社會學科 教授)

### 《目 次》

- |                      |                 |
|----------------------|-----------------|
| I. 研究의 背景 및 問題 提起    | III. 研究資料와 調查方法 |
| II. 都市間의 生態學的 支配와 統合 | IV. 研究結果        |
|                      | V. 結論           |

### I. 研究의 背景 및 問題提起

지난 30餘年에 걸쳐 경험한 급속한 産業化와 經濟發展의 결과, 韓國의 都市人口는 1960年에 全體人口의 약 28퍼센트에 불과하던 것이 1980年에 두 배를 증가하는 57퍼센트를 나타내고, 1986年에 65.4퍼센트, 그리고 1990년에는 전체인구의 약 78퍼센트가 都市地域에 居住하는 높은 增加現狀을 보여왔다. 뿐만 아니라 1960年代 부터 1970年代 까지 극심하게 나타났던 大都市 人口集中 특히, 서울 중심의 人口集中 현상은 1980年代에 들어와서는 서울을 중심으로한 首都圈에의 人口집중현상이 더욱 深化되어 首都圈 地域인 서울, 京畿 一圓地域에 우리나라 全體人口의 약 43퍼센트가 몰려있는 實情이다. 그 다음으로는 釜山을 중심

으로한 蔚山, 馬山, 昌原을 포함하는 釜山圈과 大邱를 중심으로한 浦項, 龜尾를 포함하는 大邱圈이 다른 地域에 비해 相對的으로 많은 人口가 集中되어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人口 分布는 地域的으로 매우 큰 不均衡을 이루고 있다.

都市間의 支配와 服從의 관계규명을 통한 보다 明確한 都市生態系의 理解를 돕기 위한 방안의 일환으로 都市의 位階秩序속에서 都市들 사이의, 地域間 勞動의 分化와 그와 相關한 都市들 사이의 機能을 測定할 때 人口의 規模를 그 가능자로 使用해 온 것이 普遍的인 現狀이었다. 그러나 都市들 間에 있어서 支配程度나 機能들을 生態學的으로 分析하는데 있어서 人口規模만으로 評價한다는 것은 많은 問題點을 안고 있는 것 또한 否認할 수 없다. 왜냐하면 都市位階 속에서 도시들 간의 支配와 從屬의

관계는 人口規模와 같은 物理的인 것보다는 실제로 統制와 影響力을 미치고 있는 機能과 役割을 중심으로 測定하는 것이 보다 더 現實的이기 때문이다(Vance and Sutker, 1957; Poston and Gu, 1990).

그러므로 本 研究에서는 1986年 현재 韓國에 所在하는 50個 都市의 生態學的 構造의 實態를 把握하고, 특히나 이들 都市들 사이에 存在하고 있는 支配類型과 統制機能의 糾明에 焦點이 맞추어질 것이다. 뿐만아니라 이러한 分野에 관하여 先行된 西歐社會의 연구결과와 東洋圈의 中國都市들의 生態學的 연구결과를 社會的 文化的 歷史的 差異를 가진 우리나라 都市들에 관한 本 研究結果와 比較를 시도함으로써 國家間的 都市位階秩序의 差異를 밝혀보고자 한다.

表 1. 1986年 全國의 50個 都市들에 대한 여섯變數의 算術平均 및 標準偏差

	算術平均	標準偏差
企業體數	1,883.40	6,623.65
都賣業數	606.58	2,680.49
總生産額	984,681.93*	1,966,331.57
서비스業體數	335.84	1,090.28
總賃金	98,431.72*	216,910.66
金融機關數	91.65	253.74
公務員數	1,509.72	3,891.34

\*: 1,000,000 단위임

## II. 都市間的 生態學的 支配와 統合

### 1. 韓國都市의 歷史 및 變遷

考古學者 차일드(V. Gordon Childe)에 따르면 都市는 農業 이외의 專門職 職業人이 생겨나면서 나타났다고 하며, 이러한 都市의 出現은 紀元前 약 300年頃 까지 거슬러 올라갈 수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都市의 形成과 所在가 뚜렷한 것을 거슬러 올라가면 高句麗의 平壤, 百濟의 公州와 扶餘, 新羅의 慶州 등 약 1500年 내지 2000年 前부터 存在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近代에 들어와서는 朝鮮祖가 서울을 首都로 定한 이후 1426년에 行해진 調查結果에 따르면 서울의 人口가 약 103,000名 이었으며, 1876年 開港當時 서울의 人口는 약 200,000名, 釜山이 약 16,000名, 그리고 大邱는 약 14,000名 정도의 人口를 갖고 있었던 것으로 記錄되어 있다. 서울의 경우 朝鮮祖 500年 동안 崩潰 귀족과 관료들의 集結地로서 非生産的인 都市로 一貫해 온 탓으로 그 기간 동안 他地域으로부터 人口의 吸收能力이 아주 미미했던 관계로 1910年 韓日合邦 당시의 人口가 238,000名에 불과하였다(손정목, 1977). 全體 人口에 대한 都市化率은 1935년에 5퍼센트 미만이었으나, 1985년에 약 65퍼센트, 그리고 1990년에는 약 78퍼센트로서 開發途上國의 平均都市化率인 27퍼센트를 훨씬 증가하는 것은 물론 先進國의 平均 都市化率 68퍼센트를 웃돌고 있다(손정목, 1988).

### 2. 都市의 概念

都市에 대한 概念의 定義는 時間과 空間의 차이에 따라 學者들 마다 다양하게 定義되어 왔다. 에릭선 (E.G Ericksen, 1954)은 都市란 人口의 密集 때문에 異質性和 非人格性의 경향을 가진 사람들의 定住的 集會이라고 定義하고 있으며, 쇼버거 (Giedion Sjoberg, 1960)는 都市란 知的 엘리트를 포함한 여러가지 非農業 分野의 專門家를 保護하고 상당한 크기의 規模와 人口密度를 가진 共同體라고 주장하였다.

일반적으로 都市에 대한 規定을 내릴 때 多數의 많은 人口가 密集해서 居住하며, 그에 相應하는 施設物을 包含해서 都市라고 定義하고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오늘날 각 國家들의 都市에 대한 概念의 定義는 다소간의 差異를 보이고 있는데, 美國은 人口 2,500名 이상이 居住하는 地域을 都市로 看做하며, 프랑스는 2,000名, 英國은 10,000名, 日本은 20,000名을 基準으로 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日帝時代 36年間 (1910—1945)은 人口 20,000名 이상의 住民을 포함하는 地域이 都市로 分類되었으며, 解放以後 오늘날까지 最少한 50,000名 이상의 住民을 포함하는 地域이 行政的으로 都市로 分類되어 왔다.

### 3. 都市間 支配와 統制

韓國처럼 좁은 領土에 많은 人口를 가진 國家에서는 국가사회 全體構造 속에서 都市들間的 關係를 하나의 都市體系로 간주할 수 있으며, 그와 같은 都市體系內에서의 다른 都市들과의 關係나 落後된 地域들과의 關係들은 人口規模와 같이 量的으로 研究될 수 있겠으나, 또한 機能과 役割의 측면에서는 質的으로 研究되어질 수 있다.

人口規模가 都市機能을 測定하는데 있어서 代表的인 것으로 빈번하게 언급되어 왔음에도 불구하고, 人口規模와 都市機能 사이의 關係가 잘 符合하지 않는 點 또한 否認할 수 없다. 밴스와 스트커(Vance & Sutker)에 따르면 大規模 人口를 포함하는 都市를 일반적으로 生活中心都市(Metropolis)라고 命名하지만 사실은 모든 메트로폴리스(Metropolis)를 大都市라 말할 수는 있겠지만 모든 大都市가 機能的으로 메트로폴리스(Metropolis)라고 할 수는 없다고 주장한다. 즉, 人口規模는 都市의 位階秩序를 파악하는데 있어서 단지 附隨的인 것이며, 그 보다는 都市가 遂行하는 機能이 더 重要하다는 點을 강조하고 있다(Vance and Sutker, 1957; Bean, Poston, and Winsborough, 1972).

대부분의 生態學者들은 都市들 間에 있어서 地域的 勞動의 分化는 도시의 人口規模와 도시

의 數的 增加에 의해 形成되어 진다고 믿어 왔으며, 이러한 都市들 間的 機能的 差異들은 결과적으로 그러한 體系內에서의 位階構造를 招來하게 된다는 것이다.

메트로폴리탄 位階(Metropolitan Hierarchy)에 관한 初期의 研究로서는 던칸(Duncan)과 그의 동료들에 의해 1960년에 發表된 것으로 “Metropolis and Region”이 있다. 이 論文에서 그들은 1950年度에 最少한 300,000名 이상의 人口를 포함하는 美國의 Metropolitan 地域을 研究함에 있어서 製造業, 金融業, 商業的 機能과 관련지워 Metropolis를 位階的으로 分類할 수 있는 方向을 提示하였다. 즉, 이들의 研究는 Metropolitan의 機能과 地域的 關係에 있어서 都市들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다른가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Duncan et al., 1960). 이와 같은 初期의 生態學的 分析은 그 뒤 많은 學者들의 都市의 位階秩序 研究의 指針이 되어 왔다(Bean, Poston and Winsborough, 1972; Warner, 1977; South and Poston, 1980; 1982; Eberstein and Friesbie, 1982).

밴스와 스트커(Vance and Sutker)의 研究와 갈리와 스톤(Gasle and Stern)의 研究들은 美國 南部 都市들의 位階秩序에 관심을 갖고 이들 都市들이 背後地의 資源들을 組職하며, 다른 地域의 生産과 관련하여 中間媒體의 役割을 遂行한다고 밝히고 있다. 뿐만 아니라 位階秩序 속에서 都市들은 財貨가 다른 地域으로 流通하도록 하는 輸送經路의 役割을 담당하며, 그러한 地域들의 財貨의 흐름을 發達시키고 維持하는 仲介者 役割을 담당하고 있음을 밝히고 있다(Galle and Stern, 1981).

포스톤과 구(Poston and Gu, 1986)에 따르면, 特定の 都市가 도시 組職속에서 統制하는 힘의 程度가 클수록 都市位階秩序 속에서 相對的으로 보다 더 높은 順位를 차지하게 된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몇몇 學者들에 따르면

都市間에 존재하는 位階秩序上的 相異性を 측정하는 데에는 都市의 都賣業, 交通, 行政 및 財政樣相을 이용함으로써 가장 잘 概念化 되어 질 수 있다고 주장한다(Vance and Sutker, 1957; Duncan et al., 1960; Galle and Stern, 1981; Meyer, 1984, 1986; Marshall and Stahura, 1986). 각 都市들의 都賣業, 金融業, 그리고 行政活動의 程度가 그 도시가 다른 都市들에 行事務할 수 있는 權威와 權力關係를 代表해 준다는 것이다. 즉, 앞서 언급된 活動들이 더 많이 集中될수록 다른 都市들과의 相互作用을 統制하고 調整하는 힘이 커진다는 것이다.

따라서 本 研究에서는 西歐都市 및 中國都市들의 支配와 統속에 대한 生態學的 分析에 利用된 方法을 부분적으로 補完하여 社會性과 歷史성을 달리하는 韓國都市들의 位階秩序의 實態를 生態學的으로 糾明하며, 나아가 그 結果를 바탕으로 比較分析을 試圖하고자 한다.

### Ⅲ. 研究資料와 調查方法

本 研究에는 1986年度 韓國都市年鑑과 그의 韓國統計年鑑 및 관련된 資料들이 利用되었으며, 1986年 현재 人口 50,000 이상이 居住하며 行政적으로 都市로 命名된 地域들이 分析單位로 도입되었다. 이들 都市들의 人口規模는 表 2에 나타나 있다. 表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서울의 人口는 1,000萬 名에 육박하고 있으며, 그의 100萬을 넘는 都市가 釜山, 大邱, 仁川 등이며, 1年 혹은 2年 후에 直轄市로 昇格한 光州와 大田의 人口도 1986年 현재 100萬에 거의 수렴(收斂)하고 있다. 그러나 그 외에 各道의 道廳所在地에 속하는 都市들의 경우 오랜 기간 동안 그 지역의 行政 및 經濟의 中心地 役割을 遂行해 왔으나, 產業基地로서 급속한 量 및 質의 成長을 이루고 있는 新興都市들에

비해서 量的 成長이 相對적으로 屯하며, 機能的인 面 또한 많이 割愛하고 있는 現狀이 나타나고 있는 것 같다.

本 研究에서 도시의 位階秩序 속에서 支配와 影響力的 정도를 狀態學的으로 分析하기 위하여 벤스와 스트커(Vance and Sutker), 갈리와 스텐(Galle and Stern), 그리고 포스톤과 구(Poston and Gu) 등이 導入하여 사용했던 都市支配 測定方法을 資料의 獲得可能性 및 우리나라의 實情에 맞게끔 修正, 補完하여 使用하였다. 그 結果 都市의 支配程度를 알아보기 위하여 50個 都市들의 企業體數, 都賣業體數, 製造生產額, 金融機關의 數, 公務員의 數, 서비스 美國 남부지역의 메트로폴리탄(Metropolitan)의 類型을 연구과악하는 과정에서 벤스와 스트커(Vance & Sutker)는 都市의 支配程度를 밝혀내고, 都市가 市場을 形成하고 富를 蓄積하는데 있어서 都市를 뒷받침해주는 役割을 反映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資料를 使用하였다. 첫째, 支配程度를 측정하는 세가지 指數로는 都賣業의 總賣出額, 서비스分野의 總輸入, 企業體의 支社의 數 등이며, 둘째, 都市를 받쳐주는 程度를 측정하는 데에는 小賣部分의 賣出額, 銀行의 어음交換額, 製造部分의 附加價值 등이 利用되었다. 뿐만 아니라 벤스와 스트커(Vance and Stuker), 그리고 갈리와 스텐(Galle and Stern)은 메트로폴리탄(Metropolitan)의 支配를 說明하는데 있어서 위에서 언급된 첫부분의 세 指數에 대해서는 그들의 機能的 重要性을 고려하여 뒷부분의 指數들보다 두 배의 Weight를 주어 測定을 試圖하였다. 都市의 位階秩序를 과악하는데 비교적 어려움이 적은 관계로 이와 같은 方法이 그후 많은 學者들에 의해 利用되어 왔다.

포스톤과 구(Poston and Gu, 1986)가 1982년도 中國의 巨大都市들 사이의 支配와 統合의 生態的 類型을 연구한 結果에 따르면, 이들 巨

表 2. 全國의 都市支配 Z score 및 人口規模. 1986

City	Province	Population	Z score	Rank
서울특별시	서울	9,639,100	144.09	1
부산직할시	부산	3,514,798	22.37	2
울산시	경남	551,014	9.34	3
인천직할시	인천	1,386,911	8.56	4
대구직할시	대구	2,029,853	8.32	5
대전시	충남	866,148	1.09	6
광주시	전남	905,896	1.04	7
수원시	경기	430,752	0.02	8
포항시	경북	260,691	-0.03	9
마산시	경남	448,746	0.5	10
부천시	경기	456,292	-0.75	11
전주시	전북	426,473	-1.07	12
장원시	경남	173,508	-1.09	13
안양시	경기	361,577	-1.3	14
성남시	경기	447,692	-1.33	15
구미시	경북	142,094	-1.42	16
군산시	전북	185,649	-1.68	17
청주시	충북	350,256	-1.7	18
안동시	경북	114,216	-2.44	19
이리시	전북	192,269	-2.56	20
목포시	전남	236,085	-2.58	21
진해시	경남	121,341	-2.62	22
춘천시	강원	162,988	-2.86	23
진주시	경남	227,309	-2.9	24
제주시	제주	202,911	-2.91	25
천안시	충남	170,196	-2.97	26
여주시	전남	171,933	-3.06	27
광명시	경기	219,611	-3.18	28
급성시	경기	58,897	-3.24	29
원주시	강원	151,165	-3.36	30
경주시	경북	127,544	-3.38	31
강릉시	강원	132,897	-3.4	32
동해시	강원	91,691	-3.47	33
충주시	충북	113,331	-3.48	34
의정부시	경기	162,700	-3.49	35
태백시	강원	113,997	-3.53	36
순천시	전남	121,958	-3.56	37
충무시	경남	87,459	-3.58	38
김해시	경남	77,903	-3.66	39
영주시	경북	84,742	-3.7	40
김천시	경북	77,254	-3.72	41
서귀포시	제주	82,311	-3.75	42
제천시	충북	102,274	-3.76	43
속초시	강원	69,501	-3.78	44
송탄시	경기	66,357	-3.82	45
삼천포시	경남	62,466	-3.82	46
정주시	전북	79,323	-3.85	47
동두천시	경기	68,633	-3.86	48
영천시	경북	52,811	-3.90	49
남원시	전북	61,447	-3.91	50

大都市들의 몇몇은 그 影響力이 地域的인 것에 不過한 都市들도 있으나, 반면에 한 두 都市들은 그들의 影響力이 國際的으로 매우 큰 경우도 있음이 밝혀졌다. 첸(Chen 1986)은 1982년 中國의 16個 巨大都市들의 生態學的 特性을 연구하면서 이들 도시들의 初期의 都市化 段階는 西歐都市들과 類似한 樣相을 갖고 있었으며, 또한 中國의 都市들이 中國내의 都市 이외의 다른 地域들 보다는 높은 生活水準과 相對的으로 쾌적한 環境을 갖고 있는 것 또한 사실이지만 第3世界의 首位都市(Primate City)들이 안고 있는 人口過密과 產業公害와 같은 問題들에 직면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

業種의 數 및 總給與額의 일곱가지 指數를 도입하였다. 이와 같은 일곱가지 指數 가운데 都市의 支配 및 統合을 측정하는 데 있어서 相對的인 중요성을 감안하여 앞부분의 다섯가지 指數에 두 배의 Weight를 附加하였으며, 각 指數의 標準化된 點數를 각 都市別로 合計하여 도시의 支配程度를 나타내는 測定指數로 사용하였다. 이러한 都市支配를 測定하는 指數를 導出한 公式는 다음과 같다.

標準都市支配指數=

$$Z(\text{기업체수}) \times 2 + Z(\text{도매업체수}) \times 2 + Z(\text{제조업생산액}) \times 2 + Z(\text{금융기관수}) \times 2 + Z(\text{공무원의 수}) \times 2 + Z(\text{서비스업체수}) + Z(\text{임금총액})$$

위에서 언급된 都市支配指數를 나타내는 公式 중에서 앞부분의 다섯가지 指數는 한 都市가 다른 都市를 支配하는 것을 反映하고 있으며, 뒷부분의 두 指數는 都市가 獨立的으로 市場을 形成하고 富를 蓄積하는 의미에서 都市의 役割을 나타내고 있다.

#### IV. 研究結果

##### 1. 都市의 支配序列

表 2는 支配程度를 측정하는 指數에 따라 1986年度 현재 韓國에 所在하는 50個 都市의 序列을 매긴 것을 나타내며, 表 3은 이들 50個 都市들을 서울, 서울 이외의 地方中心都市 10個, 計劃된 產業中心都市, 그리고 나머지 都市들로 4個 集團으로 區分한 것으로서 이들 集團의 人口百分率 및 支配標準點數의 範圍를 보여 주는 것이다.

서울은 우리나라의 政治, 經濟, 社會, 文化 등 거의 모든 분야에 걸쳐서 다른 모든 都市들에 막대한 影響을 행사하고 있는 名實相符한 心臟部라 할 수 있다. 本 研究에서 支配程度를 파악하기 위하여 도입한 標準支配點數(Z Score) 역시 表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144로서 우리나라의 어떤 都市보다 높으며, 두번째 높은 都市에 해당하는 釜山의 標準支配點數(Z Score) 22.37보다도 무려 7배가 넘는 높은 點數를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研究結果로 미루

表 3. 都市集團別 人口構成比 및 支配 Z score, 1986

	# of cities	Percent of all cities	Z score range	
서울	1	33.45	144.09	
直轄市를 포함한 道廳所在地	10	38.86	22.37	-2.91
產業基地	6	7.69	9.25	-1.42
나머지 都市	33	20.00	-1.30	-3.91

어 볼 때 서울은 美國의 뉴욕, 日本의 東京, 中國의 상하이 등의 巨大都市들이 그들 國家의 다른 都市들에게 行使하고 있는 支配와 統制力 보다는 훨씬 막강한 影響力을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우리나라 輸出入의 關門 역할을 하고 있으며, 東南部 地域의 核心地域에 해당하는 國際港口인 釜山은 韓國의 第2의 都市로서 서울을 제외한 다른 都市들 보다는 相對적으로 높은 支配程度를 나타내고 있지만, 人口의 規模面에서 서울의 4/11에 이르고 있는 釜山の 機能과 役割을 支配指數로 분석해본 結果 서울이 遂行하고 있는 役割의 불과 1/7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本 研究에서 무엇보다 例外的인 사실로 밝혀진 事項 중의 하나는 인구 550,000 남짓을 가진 蔚山이 大邱, 仁川, 大田, 光州와 같이 훨씬 많은 人口를 포함하는 都市들 보다 標準支配點數(9.34)가 높게 나타난 事實이다. 이러한 現狀은 蔚山 地域에 집중되어 있는 重工業과 自動車 産業 등의 影響力이 輕工業을 主 産業으로 하는 서비스와 消費中心의 都市들 보다는 影響力이 훨씬 높은 點을 잘 反映하고 있다고 할 수 있겠다.

東南部の 內陸에 位置하고 있으며, 周邊 地域의 중심지역 역할을 수행해 온 大邱는 人口의 規模面에 있어서는 第3位로서 그다음의 順位에 속하는 仁川보다 人口가 거의 2배에 가까우나, 都市의 役割과 그 機能을 가늠하는 支配指數는 오히려 仁川(8.56)보다 낮은 8.32로서 5위를 보여주고 있다. 뿐만 아니라 人口의 規模面으로 볼 때, 大邱 人口의 불과 1/4에도 미치지 못하는 蔚山이 都市位階上의 실질적인 機能面에 있어서는 大邱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60年代 이후 纖維産業의 중심지로서 또한 慶北圈의 經濟, 行政 및 社會面의 求心役割을 수행해 왔지만, 都市의 量的인 面의 增加에 機

能과 役割이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본 研究結果 나타났다. 즉, 60, 70年代에 가지고 있던 纖維産業 分野의 勞動集約인 속성을 탈피하지 못함으로써 國際競爭力은 相對적으로 弱화되었으며, 오늘날 重工業이나 電子産業과 같은 尖端分野 産業의 발달의 다른 地域에 비해 상대적으로 不進한 實情이다. 뿐만 아니라 消費性 서비스 部分의 지나친 投資로 인하여 再生産性이 상대적으로 낮은 것도 다른 都市들에 대하여 발휘하는 大邱市의 影響力이 人口의 規模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原因으로 들 수 있다.

반면, 仁川市의 경우 量的 規模를 고려해 볼 때 다른 都市에 대하여 미치는 支配程度가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現狀은 仁川市가 서울의 關門으로서의 役割을 수행하고 있는 點과 無關하지 않을 것이며, 또한 首都圈 周邊의 重工業의 發達로 인한 結果와 관련지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이다.

그 외 中部의 忠淸地方과 西南部의 湖南地方의 중심도시인 大田과 光州의 경우, 都市支配의 實質的인 面을 가늠하는 標準支配指數가 각각 1.09와 1.04로서 都市位階秩序上에 있어서 바로 윗 順位에 속하는 都市의 불과 1/10에도 채 미치지 못하는 극히 낮은 狀態를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結果는 이들 地域들이 都市의 位階秩序 속에서 차지하고 있는 實質的인 機能이 얼마나 劣惡한가를 잘 보여 주고 있다. 뿐만 아니라 全北地方의 중심도시 全州와 忠北地方의 중심도시 淸州의 標準支配指數는 마이너스를(-1.07 과 -1.70) 각각 나타내고 있으며, 相對的 奧地에 속하는 江原地方과 濟州地方의 중심도시인 春川과 濟州는 이들 都市보다도 더 낮은 標準點數를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結果로 미루어 보아 韓國의 경우 人口 規模上에 있어서 一部 大都市들이 비록 特定地域의 中心地라 하더라도 서울一圓과 嶺南地方의 한 두 都市를 제외하고는 그 影響力과 統制力이 상대적

으로 매우 微微함을 알 수 있다. 이러한 現狀은 다른 地域에 대한 서울의 影響力이 지나치게 강한 관계로 다른 都市들의 機能과 役割이 상대적으로 약할 수 밖에 없는 現實을 잘 반영하고 있는 것 같다.

浦項, 富川, 馬山, 昌原, 龜尾 등의 도시들은 政府主導下에 계획적으로 産業化된 産業中心 都市들로서 비록 絶對적인 標準支配點數는 낮다고 하더라도 人口規模를 고려한다면 相對的으로 다른 都市들보다는 높은 位階順序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趨勢는 앞으로 계속되어서 아마도 다른 都市들에 대한 이들 都市들의 相對的 支配와 統制力은 계속 높아질 것으로 期待된다.

이러한 結果는 韓國의 경우 都市의 生態系的 位階秩序 속에서 首都 서울의 影響力과 支配力이 그 類例를 찾아볼 수 없을 만큼 지나치게 偏重되어 있음을 經驗的으로 證明하고 있는 것이다. 그 結果 상대적으로 落後된 地域이라 할 수 있는 湖南地方과 江原地方의 경우 서울 중심의 首都圈과 嶺南地方 都市들 보다 현저하게 낮은 位階順序를 나타내고 있으며, 심지어 地方의 道廳所在地의 支配點數가 首都圈이나 産業前進基地 都市의 支配點數보다 현저히 낮은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行政的으로 중요하다고 인식되어 온 都市들의 勢力이 실질적인 面에 있어서는 距離가 있음을 알 수 있고, 따라서 적은 數의

人口를 가졌다 하더라도 相對的으로 더 發達된 地域의 都市들은 人口를 더 많이 가진 덜 發達된 地域의 都市보다 실질적으로 그 影響力과 支配力이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다.

## 2. 都市의 支配와 都市의 人口規模와의 關係

지금까지 알려진 바로는 都市의 人口規模로서 都市의 順位를 가늠하는 것이 都市의 位階秩序 속에서 都市의 重要性을 나타내는 가장 重要的 것으로 알려져 왔다. 그러나 이와 관련한 西歐都市에 관한 諸 研究과 中國都市에 관한 一聯의 研究들은 都市의 位階秩序의 實相을 밝히는데 있어서 都市의 人口規模를 사용하는 것보다 都市의 機能과 役割을 가늠해 줄 수 있는 都市支配點數가 더 正確하다는 結論이 나왔다(Vance and Sutker, 1957; Poston and Gu, 1989). 즉, 都市의 位階秩序上的 支配와 統制 및 影響力을 가늠하는데 있어서 都市의 人口規模는 단지 附隨的인 것이며, 사실은 機能이 더 重要하다는 것이다. 都市位階秩序上的 支配의 程度와 都市의 人口規模사이의 關係를 알아보기 위하여 試圖한 Zero Order Correlation의 結果는 다음과 같다.

表 4에서 보는 바와 같이 50個 都市의 人口規模와 支配指數 사이에는 상당히 높은 相關關係(0.9750)를 보이고 있으며, 서울을 제외한 49個 都市를 對象으로 相關關係 分析을 시도한 結果 相關關係가 비록 조금 떨어지긴 하였

表 4. 都市 支配指數와 都市人口規模의 相關關係, 1986

	Correlation	# of cities
50個의 모든 都市	0.9750	50
서울을 제외한 49個 都市	0.9178	49
直轄市와 道廳所在地	0.9771	10
産業基地	0.6445 n.s	6
나머지 33個 都市	0.9092	33

어도 여전히 높은 關係(0.9120)를 나타내고 있다. 뿐만 아니라 直轄市와 地方 道廳所在 都市를 포함한 10個 都市를 對象으로 실시한 相關關係 分析의 結果 역시 매우 높은 關係(0.9771)을 보이며, 단지 6個의 產業基地 形態 都市만을 適用하여 실시한 相關關係 分析結果는 統計적으로 有意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都市들을 제외한 나머지 33個 都市를 利用한 人口規模와 都市支配指數 사이에도 여전히 0.900을 넘는 相關關係를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結果는 都市의 人口規模와 都市支配指數 사이에 높은 相關關係가 成立하지 않는다는 美國이나 中國都市들의 生態學的 分析結果와는 差異를 보인다고 할 수 있다. 즉, 韓國의 경우 特殊한 環境 및 社會經濟的 要因들에 의해 美國이나 中國과 같은 巨大한 地域에 많은 都市들이 널리 흩어져 있는 경우와는 다른 生態學的 構造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 V. 結 論

本 研究에서는 1986年 현재 우리나라의 50個 都市를 對象으로 도시의 位階秩序 속에서의 支配와 服從의 類型 把握과 더불어 生態學的 觀點에서 地域的 勞動의 分化에 관한 分析을 試圖하였다. 본 연구 結果에 의하면 都市의 位階秩序 속에서 支配와 統制力을 測定하는데 있어서는 人口規模와 같은 量的인 것으로 가늠하기 보다는 機能(function)과 같은 質的인 面으로 測定하는 것이 보다 더 正確한 것으로 밝혀졌다. 그러나 韓國의 경우 몇몇의 産業化를 目的으로 計劃적으로 形成된 都市들과 그의 한 두 都市의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서는 都市位階秩序 속에서 支配와 統制를 측정하는데 人

口規模를 利用하는 경우와 役割과 技能을 고려한 支配指數를 利用한 경우를 比較해 보면, 그다지 큰 差異가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支配力과 影響力의 地域的 差異를 분석한 結果에 따르면 首都인 서울의 支配力과 統制力은 量的인 面에서 일반적으로 認識되어 온 것을 훨씬 凌駕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즉, 서울은 韓國 第 2의 都市인 釜山보다 人口規模面에서는 2.5倍가 채안되지만 機能的인 面에서는 거의 7倍에 해당하는 影響力과 統制力을 발휘하고 있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首都圈 中心에 機能과 役割이 지나치게 密集되어 있음으로 해서 다른 地域들은 모든 分野에 있어서 首都圈에 지나치게 依存하는 關係를 持續하고 있으며, 이러한 現狀은 結果적으로 地域間的 均衡된 發展을 阻害할 뿐만 아니라 相對적으로 落後된 地域의 發展을 阻害하여 結果적으로는 首都圈의 人口集中을 한층 더 深化시킬 것이며, 따라서 國家全體의 面으로는 많은 問題들을 惹起시킬 소지가 커진다고 볼 수 있다.

그러므로 地域間的 均衡된 發展과 國家資源의 效率的인 利用을 통한 보다 向上된 삶의 질을 提供하고 國民들에게 公正한 機會의 提供을 위하여 政府에서는 首都圈의 機能과 役割을 地域實情에 맞게 分散하는 長期政策을 마련하여야 할 것이며, 相對적으로 落後된 地域에 대한 政策的 配慮를 과감하게 導入하여야 할 것이다.

끝으로 이와 같은 都市位階秩序에 관한 生態學的 接近과 관련하여 都市의 支配程度를 보다 더 正確하게 가늠할 수 있는 資料蒐集 및 測定方法에 대한 努力이 必要하며, 보다 最近의 資料를 利用하여 時間的 差異를 둔 比較分析의 試圖 또한 意味가 있을 것이다.

## 參 考 文 獻

- 김한곤, “노동의 분화에 관한 생태학적 분석”, 「한국인구학회지」, 제11권 2호, 1988
- 손정목, 「조선시대 도시사회 연구」, 일지사, 1977
- 손정목, 「한국현대도시의 발자취」, 일지사, 1988
- 경제기획원 조사통계국, 「한국도시연감」, 1987
- 경제기획원 조사통계국, 「한국통계연감」, 1987
- 경제기획원, 「1985년 주택 및 인구센서스 보고서」, 1988
- Bean, Frank D., Dudley L. Poston, Jr. and Halliman H. Winsborough, “Size, Functional Specialization and the Classification of Cities”, *Social Science Quarterly*, 53:20-32, 1972
- Bogue, Donald J., *The Structure of the Metropolitan Community: A Study of Dominance and Cities of China: Patterns of Dominance and Integration*, Chapter 9 in *Progress in Human Ecology*, edited by Bernd Hamm, New Delhi: Mittal Publications, 1989
- Sjoberg, G. *The Preindustrial City*, The Free Press, New York, 1960
- South, Scott J. and Dudley L. Poston, Jr., “A Note on Stability in the U.S. Metropolitan System, 1950-1970”, *Demography*, 17:445-450, 1980
- Vance, Rupert B. and Sara Smith Sutker, “Metropolitan Dominance and Integration”, *Cities and Society: The Revised Reader in Urban Sociology*, Edited by Paul K. Hatt and Albert J. Reiss, Jr. New York, The Free Press of Glencoe, Inc., 1957
- Subdominance*, Ann Arbor, University of Michigan, 1950
- Chen Xiangming, “Giant Cities of the Urban Hierarchy in China: A Persisting Dilemma with a Promising Solution”, *The Metropolis Era*, Vol. I, edited by M. Dogan and J. Kasarda, Beverly Hills, California, Sage Publications, 1986
- Duncan, Beverly and Stanley Lieberman, *Metropolis and Region in Transition*, Beverly Hills, Sage Publications, 1986
- Duncan, Otis Dudley, W. Richard Scott, Stanley Lieberman, Beverly Duncan and Halliman H. Winsborough, *Metropolis and Region*, Baltimore, The Johns Hopkins Press, 1960
- Galle, Omer R. and Robert N. Stern, “The Metropolitan System in the South: Continuity and Change”, *The Population of the South: Structure and Change in Social Demographic Context*, Edited by Dudley L. Poston, Jr. and Robert H. Weller, Austin, Texas, The University of Texas Press, 1981
- Marshall, H. and J. Stahura, “The Theory of Ecological Expansion: The Relation Between Dominance and Suburban Differentiation.” *Social Forces* 65: 352-369
- Mckenzie, R. D., *The Metropolitan Community*, McGraq-Hill, 1933
- Meyer, D. R., “Control and Coordination Links in the Metropolitan System of Cities: The South as Case Study”, *Social Forces*, 63: 349-362, 1984
- Poston, D. L., Jr., “The Urban Hierarchy of Dongbei”, PP. 480-496 in *Proceedings of the International Conference on Urbanization and Urban Population Problems*, 1987
- Poston, D. L., Jr. and Gu Baochang, “The Giant